

노인의 사회활동 및 사회적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경*, 하규수**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교신저자)**

The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Eun-Kyung Kim*, Kyu-Soo Ha**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Department of Venture Management PhD*,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Professor(Corresponding Author)**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활동 중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그리고 사회적지지가 노년층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이들 변수들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총 240명의 표본이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첫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활동과 사회적지지, 삶의 질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사회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동거가족이 있고, 건강상태와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사회적지지는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사회활동, 경제활동, 여가활동, 사회적지지, 삶의 질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effects of economic and leisure activities and social supports on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olders who live in the Seoul city and surroundings and finding out the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such as the economic and leisure activitie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level according to the demographics variables of the older.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 level, the status of living with spouse, status of economic and health conditions have positive influences of life satisfaction lever of the older. But the participation duration and frequencies of the economic and leisure activities do not a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older. Second, the social support has an influ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older. Third, the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such as social participatio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lever of the older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variables were found out partially.

Key Words : quality of life, economic activity, leisure activity, social support, quality of life

Received 8 October 2013, Revised 6 November 2013

Accepted 20 Dec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Kyu-Soo Ha(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Professor)
Email: ksh@hoseo.edu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현대인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노인의 인구 또한 날로 늘어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인구의 진행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증가되면서 고령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비한 상태이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그와 함께 고령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급증하는 고령자의 공통적인 문제는 은퇴 후 삶의 변화가 온다. 노년기에 느낄 수 있는 어려움 즉 노인의 4고(四苦)로, 病苦(심신의 건강 상실), 貧苦(경제적 의존), 孤獨苦(인간관계의 단절), 無爲苦(사회적 역할 상실)라고 할 수 있겠다.

노인들은 점차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무한정한 무의미한 시간을 겪게 되며 신체·생리적으로 퇴화되고, 사회적·심리적 변화로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어 가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은퇴로 인하여 경제적 위축,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역할이 축소가 되고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부터 오는 소외감과 고독감 등으로 노인은 심리적 약화로 삶에 대한 의욕 저하를 겪게 된다.

이렇듯 저하되어 가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사회활동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사회활동은 노인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안정감과 삶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1].

노인의 소외감, 고독감 등은 사회활동을 통하여 대인관계와 지속적인 타인과의 교류 등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 다양한 사회 참여를 통하여 노년기의 삶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삶의 질과 관련된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 참여활동(경제활동, 여가활동)과 사회적지지 그리고 삶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고 노인의 사회활동과 사회적지지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사회 참여와 사회적지지가 노인의 고립된 삶에서 탈피하고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활동의 개념과 유형, 필요성 등을 학위논문, 단행본, 국내의 학술자료와 통계자료 등의 기존문헌 문헌고찰을 참고하였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여 실증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경제·여가활동을 하시는 노인을 한정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연구의 개념변수는 종속 변수인 삶의 질의 영향요인으로 은퇴 후 노인 삶의 변화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생각되어져 독립변수를 사회활동의 유형중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그리고 사회적지지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18.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이론적 배경

3.1 사회활동

노인의 사회활동은 한 개인이 그가 속한 가족 및 사회에서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박정은[2]은 노인의 사회활동을 한 사회집단이 그 필요와 욕구를 나타내고 공동이익을 옹호하며, 특성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는 조직적 활동으로 표현하는 협의 개념과 취업활동과 지역사회 조직 활동 및 단체 활동 등이 포함되는 광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인은 사회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함으로써 사회활동과 다른 사람과의 사귀 등의 기회를 갖게 되고, 이러한 활동은 노년기의 사회적 역할 상실을 보상해주고 그 역할들을 통하여 개인적인 가치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노인의 사회활동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둘째, 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노인의 건강을 유지·향상시키고, 노년기 발달과업수행에 기여를 한다, 넷째 노인의 개인성장을 촉진하여, 사회적 관계망

을 유지시킨다. 다섯째, 노인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전반적인 사회적인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사회에 대한 주요 대응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3].

3.2 경제활동

경제활동이란 소득 확보의 중요한 원천으로 경제에 관하여 경제 주체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노년기에 있어서 일이란 노인에게 생활비 및 용돈의 소득원 확보, 자기 유용감과 정체감의 부여, 사회 관계망의 유지,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유지, 소일 또는 여가활용의 기회까지도 제공해 준다[4].

노인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이 확보되면,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노인에 대한 공적 소득 지원의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높여야한다.

3.3 여가활동

최성재·장인협[5]은 여가를 경제적 보상과 개인, 가족 및 사회적 의무감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자유와 평화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Havighurst[6]에 의하면 노인의 여가는 노년의 삶에서 오는 사회관계의 긴장상태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얻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의미로 노인의 삶의 만족과 자기 충족을 줄 수 있는 여가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7].

노인은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인생 최후의 자아실현의 기회, 둘째 노년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계획적으로 구성하여 건강한 삶으로 윤택하게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계획적으로 구성하여 건강한 삶으로 발전, 셋째, 친구 혹은 집단 형성으로 관계 속에서 격려하고 삶의 위협을 대비할 수 있는 자원 확보, 넷째, 가족과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은 물론 사회활동의 계기. 다섯째, 여가활동으로의 사회활동은 노인복지와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세대 간의 이해와 공동체 문화의 창출에 기여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노인의 여가활동의 특성은 사회적인 오랜 경험과 체

험 등으로 한 분야의 전문성은 있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생활방식과 유사한 여가생활을 찾는 사회적 특성이 있다.

3.4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만 개인이 타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으로 물질적 도움과 정서적지지, 소속감, 칭찬 등을 포함한다. 인간은 사회적지지를 받음으로 보호와 사랑, 존경, 소속감, 대화 등이 상호교류가 가능한 관계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한다.

한정화[8]는 노인들이 인지하는 사회적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노인들의 우울 정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 정도가 삶의 질에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노인들이 인지하는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대처전략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우울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변수임을 확인하였다. Song 등[9]은 노인의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함으로서 정서적지지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적절한 사회적지지는 노인에게 신체적·사회적 문제 등을 감소 또는 완화시켜 노년기의 성공적 노화와 심리적인 안녕감을 갖게 한다[10].

3.5 삶의 질

삶의 만족이란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11]으로 심리적 안녕, 행복, 사기의 개념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시간이라는 잣대를 적용하였을 때 만족은 과거, 행복은 현재, 사기는 미래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권중돈·조주연[12]은 정의하였다.

노인의 삶의 질은 행복과 만족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개인의 정신적·환경적 용인과 생활의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이 포함되었다. 노인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평가함에 있어 충족간의 함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나 행복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학적 요인, 가족 요인, 건강행위, 건강상태, 신체적 상태, 사회적 지원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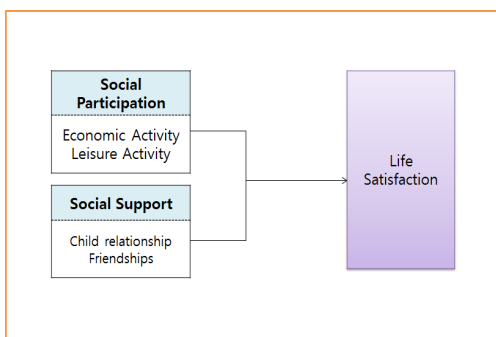
김희경[13]이 연구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의 연구 결과 성공적 노화의 인식정도에서는 성별의 차이는 없게 나타났으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남성노인이 생활만족도와 우울, 여성노인으로는 생활만족도, 우울 그리고 가족지지 자기초월감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노인이론으로 노년기의 삶을 이해하고 노년기의 삶에 적응을 도우며, 노년기에 따른 시대의 흐름과 노인 개인의 다양한 환경속에서 삶의 질을 연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 연구설계

4.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활동 활동 중 경제활동 참여기간 및 정도와 여가활동 참여기간 및 정도에 따라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인인에 대한 자녀관계와 친구관계에 따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활동활동 중 경제활동 참여기간 및 정도와 여가활동 참여기간 및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와 사회적지지,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 1>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4.2 연구가설

연구모형을 토대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노인의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라 사회활동, 사회적지지 및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활동(경제활동 참여기간 및 정도, 여가활동 참여기간 및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지지(자녀관계, 친구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노인의 사회활동 및 사회적지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노인의 사회활동(경제활동 참여기간 및 정도, 여가활동 참여기간 및 정도)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노인의 사회적지지(자녀관계, 친구관계)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 변수들의 측정도구의 조작적 정의

4.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종교유무, 가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동거여부,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한정화(2010), 오주은(2010), 권재일(2011)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재구성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배경변인으로 사용되었다.

4.3.2 경제활동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노인의 소득이 보장되고, 사회활동 기회가 확대되며, 사회보장 지출 감감 등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조작적 정의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4.3.3 여가활동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으로 인한 여가 만족도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결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4.3.4 사회적지지

노년기에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Cobb(1976)은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이 보살피지고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가치감을 갖고 사회 관계망의 일원이라는 느끼게 해주는 것을 사회적지지

라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의 척도는 부부관계의 척도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거가족은 많았으나, 사별 이혼 등으로 홀로되신 분들이 많아 부부관계의 질문은 적합하지 않아 부부관계의 변수는 제외를 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4.3.5 삶의 질

삶의 질란 노인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과 과거나 현재는 물론, 미래 차원까지 포함하여 생활역사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주관적이며, 복합적인 감정이라 조작적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Division		Period of Economic Activity				Frequency of Economic Activity					Period of Leisure Activity				Frequency of Leisure Activity				
		a	b	c	χ ²	1	2	3	4	χ ²	a	b	c	χ ²	1	2	3	4	χ ²
Gender	Male (n=125)	13	17	95	1.433	56	49	12	8	6.373	12	16	97	6.368*	21	30	57	17	1.961
	Female (n=115)	17	18	80		49	33	20	13		22	20	73		18	28	46	23	
Age	60-64years old(n=99)	8	13	78	7.569	48	39	10	2	27.387**	13	12	74	8.381	14	14	49	22	17.717*
	65-69years old(n=67)	11	11	45		34	21	5	7		12	13	42		14	18	26	9	
	70-74years old(n=42)	5	9	28		14	15	8	5		8	4	30		7	13	19	3	
	Since 75 years (n=32)	6	2	24		9	7	9	7		1	7	24		4	13	9	6	
Academic Background	Elementary School (n=60)	3	9	48	10.424	23	21	16	0	37.819***	7	6	47	11.411	6	20	27	7	9.188
	Middle School (n=54)	7	10	37		18	22	7	7		7	12	35		9	13	23	9	
	High School (n=82)	17	10	55		32	33	6	11		18	11	53		15	13	38	16	
	College (n=44)	3	6	35		32	6	3	3		2	7	35		9	12	15	8	
Religion	Atheist (n=32)	5	3	44	24.301***	18	19	13	2	34.768***	10	5	37	12.639*	7	15	22	8	5.416
	Christian (n=102)	4	21	77		45	43	8	6		6	19	77		18	24	46	14	
	Buddhist (n=55)	13	8	34		27	14	10	4		10	7	38		9	14	23	9	
	Catholics (n=31)	8	3	20		15	6	1	9		8	5	18		5	5	12	9	
Family to live together	Yes (n=200)	25	28	147	0.336	90	74	22	14	12.348**	31	31	138	2.275	33	49	87	31	1.176
	No (n=40)	5	7	28		15	8	10	7		3	5	32		6	9	16	9	
Health Status	Good (n=92)	3	5	22	2.777	15	5	9	1	24.403***	3	4	23	12.723*	2	16	10	2	20.497**
	Not bad (n=118)	18	19	81		59	34	17	8		26	18	74		25	23	47	23	
	Bad (n=30)	9	11	72		31	43	6	12		5	14	73		12	19	46	15	
Economic Status	Good (n=49)	12	6	22	14.819**	19	4	8	9	22.429**	8	5	27	2.566	4	13	13	10	6.443
	Not bad (n=152)	14	24	114		66	58	21	8		22	23	107		25	34	69	24	
	Bad(n=40)	4	5	39		21	20	3	4		4	8	36		10	11	21	6	

*p<.05, **p<.01, ***p<.001

Period : a : Less than 1 year, b : Less than 1-3 years, c : More than 3 years Frequency ; 1 : Daily, 2 : Two or more times a week, 3 : Once a week, 4 : 1-3 times a month

5.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종교 동거가족유무, 건강상태 및 경제 상태는 빈도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의 경제활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종류와 이유, 참여기간 및 빈도 분석한 결과 서비스직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판매종사자의 직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돈이 필요하거나 일이 좋아서 혹은 건강유지를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돈이 필요하거나 일이 좋아서 혹은 건강유지를 위한다고 답하였다. 경제활동의 한 기간은 3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매일 혹은 일주일에 2번 이상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의 여가활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가활동 종류와 이유, 참여 기간 및 빈도 분석한 결과 여가의 종류는 산책, 조깅, 등산, 약속터 다니기 등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 순으로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기타 모임 등의 여가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여가활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의 위하여 혹은 남은 시간을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한 순이며 기간은 일주일에 1~2번 정도에서 3년 이상의 여가활동을 참여한다는 순으로 답하였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여가활동 기간 및 횟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여가활동 기간이 길고,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활동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빈도가 높고, 기독교가 경제·여가활동 기간이 길고 경제활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거가족이 없는 집단이 경제활동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이 좋을수록 경제·여가활동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 상태는 좋을수록 경제활동 기간이 높고 보통일수록 경제활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차이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자녀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은 즉 60~64세가 자녀관계와 친구관계를 더 좋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나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교집단중 기독교 집단,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건강·경제상태가 좋은 집단이 자녀관계, 친구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ffer according to the social support

Division	Child Relationship			Friend Relationship			
	M	SD	t/F	M	SD	t/F	
Gender	Male(n=125)	3.61	0.54	3.053**	3.71	0.64	.573
	Female(n=115)	3.39	0.56		3.66	0.71	
Age	60-64years old(n=99)	3.65 (b)	0.57	6.739*** a<b	3.88 (b)	0.54	6.907*** a<b
	65-69years old(n=67)	3.54 (ab)	0.52		3.47 (ab)	0.74	
	70-74years old(n=42)	3.26 (a)	0.51		3.50 (a)	0.69	
	Since 75 years (n=32)	3.31 (a)	0.54		3.77 (a)	0.67	
Academic Background	Elementary School (n=60)	3.24 (a)	0.57	8.661*** a<b	3.66	0.64	1.858
	Middle School (n=54)	3.54 (b)	0.42		3.55	0.70	
	High School (n=82)	3.53 (b)	0.60		3.69	0.65	
	College (n=44)	3.77 (b)	0.49		3.87	0.68	
Religion	Atheist (n=52)	3.47 (a)	0.54	3.774*	3.68 (a)	0.70	2.928*
	Christian (n=102)	3.63 (b)	0.58		3.82 (b)	0.64	
	Buddhist (n=55)	3.33 (a)	0.53		3.50 (a)	0.66	
	Catholics (n=31)	3.47 (a)	0.49		3.59 (a)	0.69	
Family to live together	Yes(n=200)	3.56	0.53	3.368***	3.74	0.62	2.562*
	No(n=40)	3.24	0.61		3.39	0.83	
Health Status	Bad (n=30)	2.91 (a)	0.53	35.353*** a<b<c	3.38 (a)	0.65	6.636*** a<b
	Not bad (n=118)	3.46 (b)	0.49		3.63 (ab)	0.65	
	Good (n=92)	3.76 (c)	0.48		3.85(b)	0.66	
Economic Status	Bad (n=40)	3.00 (a)	0.53	37.329*** a<b	3.39 (a)	0.75	8.661*** a<b
	Not bad (n=152)	3.51 (b)	0.47		3.67 (ab)	0.61	
	Good (n=48)	3.90 (c)	0.51		3.97 (b)	0.68	

*p<.05, **p<.01, ***p<.001

5.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t-test와 ANOVA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질이 더 높았고, 연령은 낮은 연령인 60~64세의 삶의 질이 더 높았으며, 초등학교 졸업이하보다는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교집단은 기독교가, 다른 집단에 비해 삶의 질이 더 높았으며, 그리고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가 삶의 질이 높게 분석되어졌으며, 건강·경제상태가 보통이거나 좋은 집단일수록 삶의 질은 높게 분석되었다.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ffer according to the quality of life

Division		quality of life		
		M	SD	t/F
Gender	Male(n=125)	3.49	0.65	4.313***
	Female(n=115)	3.13	0.63	
Age	60-64years old(n=99)	3.53(b)	0.55	7.842*** a<b
	65-69years old(n=67)	3.29(ab)	0.73	
	70-74years old(n=42)	3.13(a)	0.56	
	Since 75 years(n=32)	2.99(a)	0.79	
Academic Background	Elementary School(n=60)	2.97(a)	0.66	14.176*** a<b<c
	Middle School (n=54)	3.26(ab)	0.59	
	High School (n=82)	3.39(b)	0.59	
	College(n=44)	3.75(c)	0.63	
Religion	Atheist(n=52)	3.20(a)	0.63	11.268*** a<b
	Christian(n=102)	3.59(b)	0.57	
	Buddhist (n=55)	3.06(a)	0.65	
	Catholics(n=31)	3.11(a)	0.74	
Family to live together	Yes(n=200)	3.41	0.61	5.059***
	No(n=40)	2.86	0.76	
Health Status	Bad(n=30)	2.62(a)	0.48	37.246*** a<b<c
	Not bad (n=118)	3.24(b)	0.56	
	Good(n=92)	3.65(c)	0.64	
Economic Status	Bad(n=40)	2.66(a)	0.52	49.820*** a<b<c
	Not bad (n=152)	3.33(b)	0.56	
	Good(n=48)	3.85(c)	0.60	

***p<.001

5.4 사회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사회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통제하고 노인의 사회활동(경제활동, 여가활동)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한 결과 1단계에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동거가족이 있거나 건강 및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은 높게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경제활동, 여가활동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동거가족이 있거나 건강 및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사회활동의 요인인 경제·여가활동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경제활동 기간이나 횟수, 여가활동 기간이나 횟수는 삶의 질에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Table 4〉 Societal impact of quality of life

Independent variables		step	1step			2step		
			B	β	t	B	β	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¹⁾	.010	.007	.130	.014	.011	.184	
	Age	-.066	-.106	-1.974*	-.061	-.097	-1.704	
	Academic Background	.085	.135	2.483*	.083	.131	2.359*	
	Religion ²⁾							
	Religion1	.161	.120	1.777	.159	.118	1.736	
	Religion2	-.001	-.001	-.008	-.015	-.010	-.150	
	Religion3	-.128	-.065	-1.073	-.131	-.066	-1.088	
	Family to live together ³⁾	.208	.117	2.108*	.219	.123	2.167*	
	Health Status	.250	.250	4.128***	.241	.242	3.842***	
	Economic Status	.360	.328	5.858***	.374	.340	5.895***	
Economic Activity	Period of Economic Activity				.044	.046	.716	
	Frequency of Economic Activity				.012	.017	.294	
Leisure Activity	Period of Leisure Activity				.036	.040	.639	
	Frequency of Leisure Activity				.032	.046	.904	
F			22.299***			15.376***		
R ²			.466			.469		
ΔR^2						.003		

*p<.05, **p<.01, ***p<.001

¹⁾Gender¹⁾r(Female=0, Male=1, Religion²⁾(Atheist=0), Religion1 (Christian=1),Religion2(Buddhist=1), Religion3(Catholics=1),

³⁾Family to live together (No=0, Yes=1)

5.5 사회적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사회적지지(자녀관계, 친구관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통제하고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1단계에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회귀모형으로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동거가족이 있고 건강,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나타났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사회적지지(자녀관계, 친구관계)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자녀 및 친구와의 관계가 좋고 믿고 의지할 자녀가 있으며, 가족처럼 지내는 친구가 있을수록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5> Social support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Independent variables		1step			2step		
		B	β	t	B	β	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¹⁾	.010	.007	.130	.056	.042	.830
	Age	-.066	-.106	-1.974*	-.046	-.073	-1.506
	Academic Background	.085	.135	2.483*	.082	.130	2.647**
	Religion ²⁾						
	Religion1	.161	.120	1.777	.147	.109	1.807
	Religion2	-.001	-.001	-.008	.035	.022	.389
	Religion3	-.128	-.065	-1.073	-.108	-.055	-1.010
	Family to live together ³⁾	.208	.117	2.108*	.120	.067	1.334
	Health Status	.250	.250	4.128***	.142	.142	2.493*
Economic Status	.360	.328	5.858***	.248	.226	4.260***	
Social Support	Child Relationship				.195	.195	3.326**
	Friend Relationship				.248	.248	4.951***
F		22.299***			27.842***		
R ²		.466			.573		
ΔR^2					.107		

*p<.05, **p<.01, ***p<.001

¹⁾Gender(Female=0, Male=1, Religion²⁾(Atheist=0), Religion1 (Christian=1), Religion2(Buddhist=1), Religion3(Catholics=1),

³⁾Family to live together (No=0, Yes=1)

6. 결론

6.1 연구결과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요인으로 사회활동과 사회적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와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하고 검증하여 그 결과의 시사점으로 성공적인 노후의 삶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활동(경제·여가 활동 기간 및 횟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은 남성이 여가활동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비율이 높으나 여가활동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학력은 높을수록 경제활동 빈도가 높으며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가 경제·여가 활동 기간이 길고 경제활동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경제활동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활동 빈도가 높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여가활동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제상태가 보통인 경우 경제활동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부분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는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면서 동거가족이 있고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경제 및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자녀·친구관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만성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자녀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60~64세가 자녀와 친구관계가 더 좋게 인식되었다. 학력은 낮을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가 다른 단체보다 자녀·친구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분석되어졌으며 함께 동거하는 가족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자녀관계와 친구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질이 더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대하여 높게 나타났다. 기독교가 다른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

으며,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보였다. 또한 건강과 경제상태가 보통이상인 집단이 삶의 질이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노인의 사회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회귀모형의 분석결과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동거가족이 있고 건강상태와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나타냈으며,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여가활동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동거가족이 있거나 건강 및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대하여 사회활동의 요인인 경제활동이나 여가활동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경제활동 기간이나 횟수, 여가활동 기간이나 횟수를 삶의 질에 결정 짓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통제하고 사회적지지(자녀관계, 친구관계)를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회귀모형의 결과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동거가족이 있고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지지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자녀 및 친구와의 관계가 좋고 믿고 의지할 자녀가 있으며, 가족처럼 지내는 친구가 있을수록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사회활동 활동과 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노인만이 느끼는 고독, 외로움, 사회적 위축 등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의 사회적지지가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적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사회적지지를 받아 사회활동에 적극 활동을 함으로 지역사회 의 새로운 사회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6.2 시사점과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회활동 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는 있으나, 이에 반면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의 요인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된 것은 노인들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에 따라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례되어진다. 이는 노인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무수히 많다. 그 요인들을 다양한 각도로 심도 깊은 연구를 하여 각 변수들의 요인들을 통제함으로 노인의 삶과 사회활동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삶의 질이 높아 사회활동이 높을지 사회활동이 높아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인지에 대한 후속연구를 요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사회적지지 확충을 통하여 다차원적 지지가 노인의 사회활동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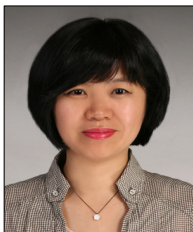
REFERENCES

- [1] Choi Kyoung in,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Focused on Wonju, A Master's Thesis of Social Welfare Policy Graduate School Sanji University, 2007.
- [2] Jeong Eun Bak, "Elderly women in the initial study on community participation", Korea Institute of female employees, pp, 94-96, 1994.
- [3] Jea Ug Ko, Social Work the elderly, Yangseowon, 2011.
- [4] Kwon, Jung Don, Social Work the elderly, Hakjisa, 2011.
- [5] Sung-Jae Choe, In-Hub Chang, Social Welfare for Older Persons in Aning Societ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2.
- [6] Havighurst, R. J. Social role, work, leisure and education. In C Eisdorfer & M, P.(Eds), "The Psychology of adult development and Socializ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73.
- [7] Jea Ug Ko, Dong Yeol Lee, "The Degree of o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policy effects of the job creation

project in the Elderly”,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31, No, 4, pp 1209-1228, 2011.

- [8] Chung Hwa Han, “ Structural Model of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Ph.D.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2010.
- [9] Song J. A. Jang S. O. Lim Y. J, Lee S. J, Kim S. Y, Seol G. H, “Factors affecting lones in community dwelling Korean eld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14(3), pp, 371-381.
- [10] Sung Mi Hae, Lim Young M, Joo Kyung Sook “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ume 25. No. 1, 95-106, 2011.
- [11] Choi Hea Kyu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Support, Compliance and quality of life in Chronic Arthritis”, Master Thesis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1987.
- [12] Kwon, Jung Don, Cho, Ju Yeon,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0, No. 3. 61-76. 2000.
- [13] Hee Kyung Kim, “Gender Difference of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ccessful Aging among Rural Community-dwelling Korean Elders”,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32, No, 3, pp, 819-834, 2012.

김 은 경(Kim, Eun Kyung)



- 2011년 2월 : 호원대학교 호텔관광학과 졸업 (사회복지학과 복수전공)
 - 2013년 2월 :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 졸업(노인복지학석사)
 - 2013년 9월 :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 2011년 6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실습조교
· 관심분야 : 복지경영, 노인복지
· E-Mail : uncioms@hanamil.net

하 규 수(Ha, Kyu Soo)



- 1998년 6월 : 미국 Touro 법과전문대학원 졸업(J.D.)
 - 1999년 6월 : Georgetown 법과전문대학원 졸업(LL.M.)
 - 1998년 8월 ~ 현재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미국 연방변호사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 2002년 2월 ~ 현재 :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창업, 벤처, 경영전략, 상거래법
· E-Mail : ksh@hoseo.edu